

10. 동아시아의 근세와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흐름 ②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0. 참고연표 (ppt09와 동일)

	중국	한반도	일본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14C	원(元)	고려(高麗)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막부 설립(1333), (일본)남북조시대 시작(1336), 무로마치 막부 수립(1338)
15C	명(明)		막부조 시대	영 건국(1368), 요류릉 보반사건(1380) 조선 건국, (일본)남북조시대 종결(1392), 남북 보반사건(1393), 정난의 역(1398) 소금 요시미즈의 책봉(1401), 정화의 원정(1405-33), 이종무의 대마도 원정(1419) 계해약조(1443), 읍민정촌 창제(1446), 돌무질의 난(1448-9)
16C			무로마치 (室町) 시대	전국 (戰國) 시대 호닌의 난(1467-77)과 전국시대 시작 경국대전 반포(1485),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유록·유철의 난(1510-2), 삼포의 난(1510), 기포사화(1519) 백문출서원 창립(1543) 오다 노부나가와 오다 집성과 전국시대의 종말(1568)
17C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장계정의 개혁시작(1572),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동인·서인의 분열(1575) 노부나가 암살(1582),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통일(1590),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18C	청(淸)	조선(朝鮮)	에도(江戸) 시대	서키가하라 전투(1600), 에도 막부 수립(1603), 복인의 광해군 주대(1608), 기유조약(1609), 오사카 전투(1614-5), 호국 건국(1616) 인조반정과 서인 출세(1623), 돌림당의 대한암(1625-6), 정묘호란(1627), 일본의 쇄국체제 완성(1639) 호국의 국호변경(『정』)(1636), 병자호란(1636), 이차성의 『대순』 건국과 명의 멸망(1644) 남명 정권 멸망(1661), 『태평성대』(1661-1795), 삼번의 난(1673-81), 여승농정(1674) 네르킨스크 조약(1689) 교포개혁(1710) 영조 즉위와 왕결책(1724)
19C				간세이개혁(1790) 순조 즉위와 세도정치 시작(1800), 신유사촌(1801), 흥경래의 난(1811) 기해사촌(1839), 연포개혁(1840), 페리제독의 일본내항(1853) 진주민란(1862), 고종 즉위와 대원군 집권(1863), 병인양요(1866), 메이지유신(1868), 신미양요와 대원군의 서원철폐(1871)
			메이지	

1. 무로마치(室町) 막부와 전국시대

*본 보조교재는 무로마치 시대에서 전국시대를 거쳐 근세 에도시대까지를 다룬다. 따라서 전국시대까지는 일본 중세에 해당하지만, 이전의 보조교재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탓에 본 교재에서 함께 설명하고자 하니 수강생들의 양해를 구한다.

• 무로마치 시대(1338~1573)

: 전술했듯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자신이 옹립한 천황에 의해 쇼군(將軍)에 임명되었고, 그 결과 두 번째 군사정권인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한다(1338). 무로마치 시대의 시작이다.

: 다만 이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사에 등장한 3개의 막부 중 가장 존재감이 미미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후반은 전국시대에 해당하여 사실상 막부의 일본지배는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전반부도 유일하게 유능했던 3대 쇼군 (아시카가)요시미츠(足利義滿)를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무능한 쇼군들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 무로마치(室町) 막부와 전국시대

• 무로마치 시대 (계속)

: 요시미츠는 다카우지 사후 발생한 막부내부의 권력다툼을 수습하고 남북조 분열시대를 종식시키는데 성공한 뒤, 곧바로 막부의 지배기구 정비에 나선다. 대체로 가마쿠라 시대의 기구들을 답습했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실패경험(쇼군일족의 권력독점 + 유력가신의 소외/배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요 직책에는 복수의 유력가신들을 임명하였는데 이 점이 후일 문제가 된다.

: 즉, 요시미츠 사후 무능한 쇼군들이 연이어 취임하면서 막부 중신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심각해진 점이 바로 그것인데, 직위마저 동일한 이들이 대립할 경우, 유능한 상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중앙에서 막부의 중신들이 대립하자, 가마쿠라 시대 이래 지방에 파견되어 있던 군사/경찰권자, 즉 「슈고」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막부의 중신들이 경쟁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더 많은 권한을 약속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이들은 지방의 군사/경찰권 이외에도 행정권까지 획득하였고 그 관할지역도 확대된다.

1. 무로마치(室町) 막부와 전국시대

• 무로마치 시대 (계속)

: 따라서 예전에 비해 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된 무로마치 시대의 슈고들을, 가마쿠라 시대의 슈고와 구별하기 위해 「슈고다이묘」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에도 시대까지 지방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붙는 호칭인 「다이묘」(大名)는 많은 토지의 소유자 정도의 의미다.

: 이런 상황에서 8대 쇼군의 후계자 선정문제를 놓고 막부의 중신들이 두 패로 갈려 무력충돌을 벌이게 되자, 이들 슈고다이묘까지 가세하여 교토에서 대규모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는 곧바로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것이 일본사상 최대규모의 내전인 「오닌의 난」(應仁의 亂: 1467-1477)으로, 일본중세의 종착점인 전국시대는 이로써 시작된다.

1. 무로마치(室町) 막부와 전국시대

• 전국시대(戰國時代: 1467~1890)

: 지방권력의 절정과 「하극상」(下剋上)의 시대

: 오랫동안 중앙정치의 무대였던 교토(무로마치는 교토의 한 지명)는 오닌의 난으로 불바다가 되었고, 이를 초래한 무로마치 막부의 무능은 일본 전역에 알려졌다. 그 결과 중앙정계 진출을 위해 교토에 머물던 슈고다이묘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가 생존을 위한 힘 키우기에 나선다.

: 슈고다이묘들은 자신의 권력확대를 위해 불교사원이나 귀족·천황가의 토지·재산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지만, 이들 고대 이래의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거점인 교토가 초토화된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 그러나 슈고다이묘들이 남의 재산과 권력을 힘으로 빼앗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 그 가신들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일이 빈발했다. 이를 「하극상」이라 하며 실제로 오닌의 난에서 약 반세기가 지나자, 기존의 슈고다이묘들은 대부분 몰락하고, 그 대신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전국 다이묘(戰國大名)들이 일본 전역에서 활거하게 된다.

• 전국시대 (계속)

: 이들 전국 다이묘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명실상부한 「지배자」였다는 점이 최대의 특징이다. 종래의 슈고다이묘들은 어디까지나 막부에 의해 임명된 결과로 그 권력을 얻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능력 하나로 지방 지배자의 지위를 손에 넣었다.

: 따라서 이들은 교토의 천황과 막부의 존재는 안중에 없었으며, 자신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독자적인 성문법과 조세 체계를 제정하고(즉 입법권 획득) 실질적인 군주로 군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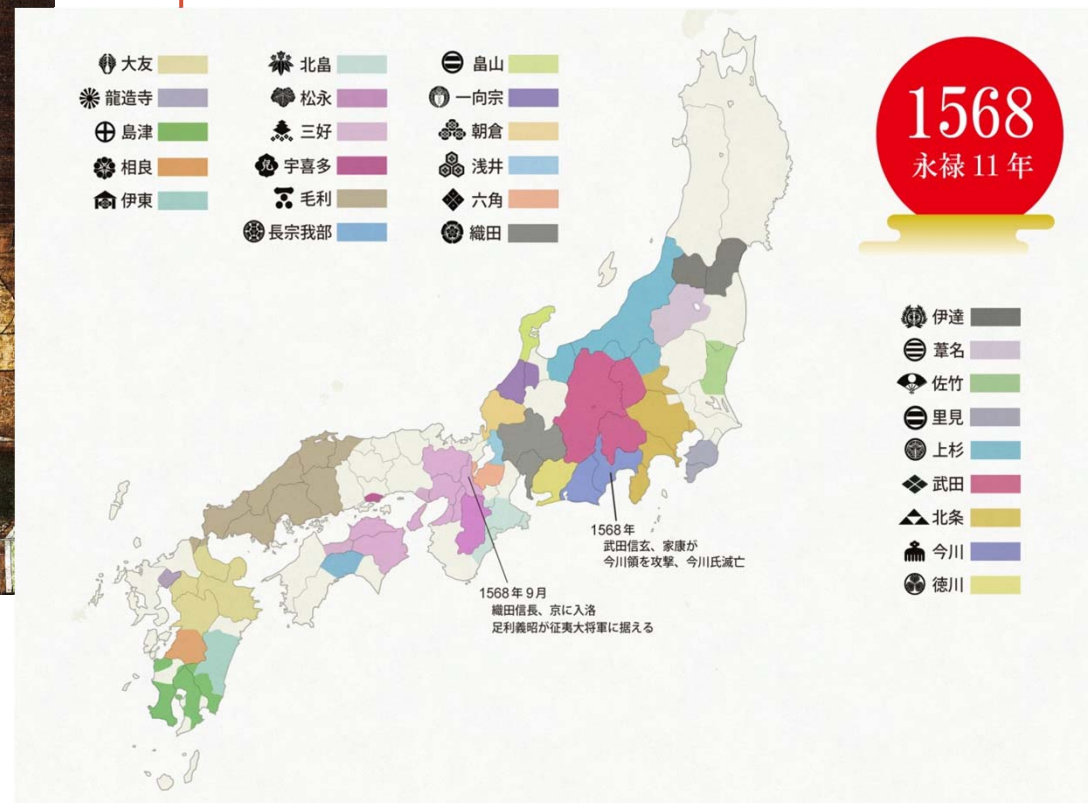
: 생존만이 최고의 미덕이던 이 시대에, 일본 각지의 전국 다이묘들은 보다 효율적인 경제제도 · 군사제도 · 통치제도를 앞다투어 도입하여 군사/경제력을 키움으로써, 다른 라이벌들과의 생존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부심했다. 이 시기에 창안된 다양한 혁신적 제도들은 이후 등장하는 에도 막부에 대부분 계승된다.

1. 무로마치(室町) 막부와 전국시대: 참고도판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 요시미츠 초상



1568년 무렵의 전국다이묘 세력도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시대
: 분열과 전쟁이 영원할 것 같던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나가(1534-1582)는 일본통일을 행동에 옮긴 최초의 전국 다이묘다. 그는 기존의 경제관행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의 영지에 대해 새롭고도 철저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입안했다. 전국시대를 통해 전쟁에서 경제가 점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는데(대규모화/장기화), 노부나가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선취한 것이었다.
: 그리고 불교세력을 철저히 탄압하여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휘하의 무사들과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제조/유통할 상공업자들을 강제로 도시에 거주시켜 농촌에서 분리시켰다(군대 조직력 ↑ / 하극상 방지).
: 노부나가는 이러한 혁신적 정책을 통해 실제 전투에서는 다른 전국 다이묘들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과시했다. 1582년 갑작스런 죽음(암살)이 없었다면 일본통일은 그의 몫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 (계속)

: 노부나가의 가신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노부나가 사후에 벌어진 내분을 수습하여 그 후계자의 지위를 손에 넣었다. 이후 다른 전국 다이묘들을 포섭하거나 무력 정벌함으로써 일본통일을 달성했다(1590).

: 그러나 통일되었다 하여 일본 전역이 그의 직할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옛 전국 다이묘(통일 이후 다이묘라 불림)들은 이제 히데요시를 주군으로 받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지의 지배자로 남았으며, 그 중에는 히데요시 최대의 정적이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같은 무시 못할 하급자도 있었다.

: 따라서 이들을 앞으로도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히데요시도 노부나가처럼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그 바탕인 경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실제 히데요시는 일본전역을 대상으로 노부나가를 능가하는 철저한 토지조사를 실시하고는 그 세율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결정했다(하극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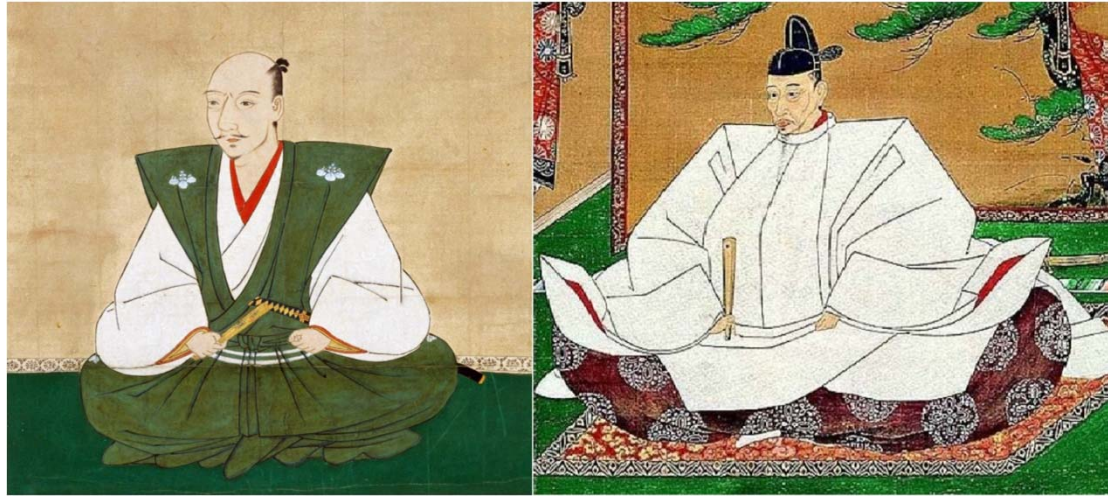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 (계속)

: 또한 그 결과 확인된 각 다이묘들의 경제력(지배영지의 쌀 생산량)에 입각하여 자신에 대한 의무와 그들 사이의 서열을 정해주었다. 히데요시는 그 밖에도 다이묘 사이의 무력다툼을 금했으며, 사농공상 사이의 직업이동도 금했다. 이상과 같은 노부나가/히데요시 시기의 혁신적 정책들은 대부분 에도 막부로 계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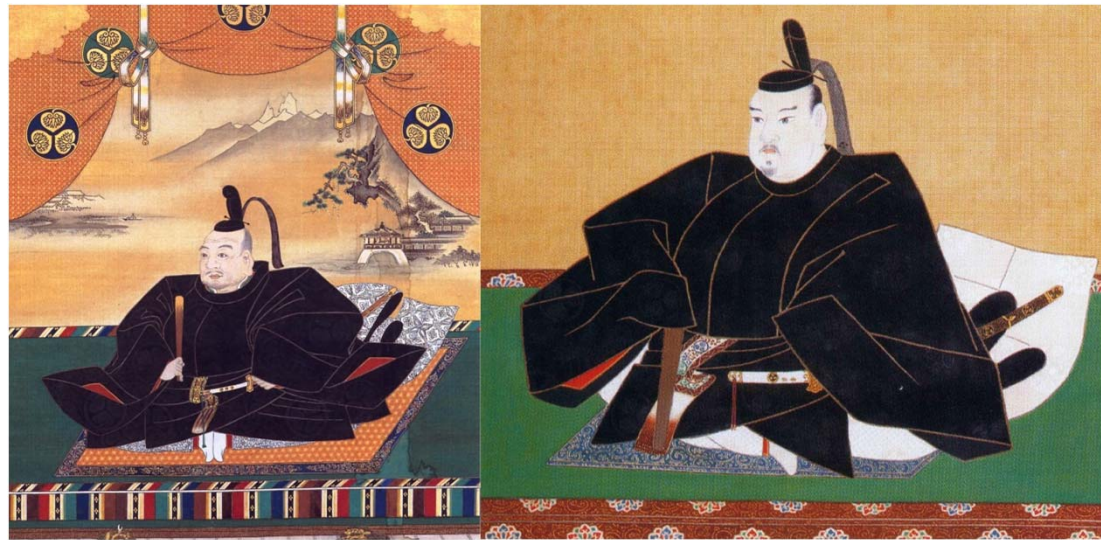
: 이처럼 체제를 안정시킨 히데요시는 하지만 무리한 조선원정을 시도하여 다이묘들의 불만을 샀으며, 결국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에야스가 히데요시 사후 모략을 통해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그의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참고도판



통일정권을 지향한 두 인물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와 막부 지배체제의 건설자

(좌)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우)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수립과 그 지배체제의 완성(17C 전반)

- : 세 번째 군사정권인 에도막부(1603~1867)의 존속시기를 에도 시대라 부름

- : 원래 노부나가의 동맹이던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는 히데요시 생전 온갖 방해공작을 견디고, 마침내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히데요시파 다이묘들을 격파했다. 그가 에도 막부를 수립한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의 일이다.

- : 막부 수립 이후 이에야스는 무사 이외의 잠재적 위협들, 즉 천황/조정, 불교세력의 정치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제정했고, 1615년 모략으로 히데요시의 아들을 할복시킴으로써 당장의 화근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 : 그러나 자신과 그 일족들의 최대의 위협은 바로 무사집단(특히 다이묘 클래스)에 의한 하극상이었으므로, 이에야스를 비롯한 초기 쇼군들의 최대 과제는 바로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막부의 수립과 그 지배체제의 완성 (계속)

: 전술한 세키가하라 전투는 근세 다이묘들을 분류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에도 시대의 다이묘란 도쿠가와 쇼군과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로, 쌀 산출량 1만석 이상의 영지를 지닌 자들을 지칭하는데, 먼저 ①신판(親藩): 도쿠가와씨 방계 혈족 출신의 다이묘 ②후다이(譜代): 세키가하라 이전부터 이에야스의 가신이던 자들로 출세하여 다이묘가 된 자들 ③도자마(外様): 세키가하라 이후 이에야스에게 마지못해 머리를 숙인 전국다이묘들로 군사력이 있고 영지도 넓었기에 위험시되었다.

: 이에야스의 손자인 3대 쇼군 이에미츠(家光)는 이러한 다이묘들의 영지를 빈번히 바꾸거나 몰수하였는데, 이는 도쿠가와 쇼군이 휘하 다이묘들의 생사를 쥐고 있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막부에 유리하게 다이묘들의 영지를 재배치하여 막부의 다이묘 지배를 안정시킨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막부의 수립과 그 지배체제의 완성 (계속)

: 그 결과, 후다이와 신판 다이묘들은 대체로 막부가 위치한 에도 주변에 위치하거나, 혹은 교통 요지와 유력 도자마 다이묘들의 영지 사이사이에 자리잡게 되어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 도자마들의 영지는 대체로 열도 변경으로 밀려나, 물리적으로도 중앙정치에 간섭하기 힘들게 되었다.

: 그러나 역설적인 점은, 19C 서양 열강이 통상을 요구하며 일본을 찾았을 때, 도자마들이 이러한 「변경성」 덕분에 막부보다 한 박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는 이들은, 대체로 이렇게 한 발 앞선 근대화 정책으로 성장한 일본 서남부 변경지대 도자마 다이묘의 영지로부터 배출되었다.

: 이에미츠의 재임기간을 통해 막부와 親막부세력 영지의 쌀 산출량은 쯔일본 총 산출량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막부의 힘은 일개 도자마로서는 범접하기 힘들게 되었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막부의 수립과 그 지배체제의 완성 (계속)

: 에도 막부의 지배형태의 특징과 그 역설

→막부 정치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 이들은 쇼군의 직속 가신 단과 후다이들이었다. 반면 신판과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던 도자마들은, 전자에 비해 거대한 영지에서 오는 막대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부정치에서는 배제되었다. 이처럼 경제력이 약한 이들에게 정치권력을 주고, 반면 경제력이 강한 이들에게 주지 않는 정치형태, 이 두 세력의 「균형과 견제」를 꾀한 점이 에도 막부 지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전국시대의 기억(=하극상)이 아직 생생했던 에도 초기, 쇼군들은 어떻게 잠재적인 「적」들을 약화시킬지에 골몰했는데, 전술한 지배형태는 바로 이런 고민의 산물이다. 다만, 이런 지배형태는 평화 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막부 말기 서양세력이 등장하여 체제개혁이 필요해졌을 때에 막부에게 독이 되었다. 즉, 개혁을 담당할 직위에 있던 이들은 이를 실행할 경제력이 부족했고, 반면 경제력이 있는 이들은 애당초 정치적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시대 중기: 막부 지배의 변동(17C후반~18C)

: 이 시기의 큰 특징은 에도 막부가 그 지배명분을 기존의 「武威」(=무력에 의한 평화실현)에서 유교적인 「文治」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는 막부가 수립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무사들 사이에 전국시대의 기억이 소멸한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 따라서 막부는 새로운 지배명분을 찾았고, 체제안정에 장점이 있는 유학이 평화기의 막부 지배를 정당화할 수단으로 장려되기 시작했다. 전쟁 가능성이 소멸하고 평화가 지속되면서 전쟁 업무보다는 행정업무가 급증한 점도 이러한 전환의 다른 원인이었다.

: 한편으로 전쟁이 사라진 사회에서 무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 중·하급 가신들의 경우 출세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유학 등 학문은 이들에게 새로운 존재이유이자 생계수단이 되기 시작한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시대 중기: 막부 지배의 변동 (계속)

: 에도 막부 수립 이후 처음 100여 년간 세상은 평화로웠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농지와 인구는 2배로 늘었다. 18C 전반 수도인 에도의 인구는 100만에 달했고, 에도 시대에 확립된 화폐경제 하에서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 문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사들의 봉급은 그대로였고, 출세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전쟁 · 과거제 부재). 게다가 직업과 거주지도 바꿀 수 없었기에 전직도 불가능하고 부수입도 기대할 수 없었다. 부유한 상급 무사라면 몰라도 중하급 무사들의 삶은 평화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어려워졌다.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다이묘 같은 최상층 무사들은 도시생활에 따른 과소비에 발목이 잡혔다. 막부는 이상과 같은 무사들의 곤궁을 막고자 빈번히 유학적 발상에 기초한 검약령을 내렸지만, 단순한 절약만으로는 화폐경제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시대 중기: 막부 지배의 변동 (계속)

: 한편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혜택은 역설적이게도 무사의 지배를 받는 도시의 수공업자 · 상인들과,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일부 농민들에게 돌아갔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무사들은 당장 이들 부유한 하층민에게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고, 자신보다 하위신분에게 돈을 꿀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 점이 중하급 무사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먼 배경이 된다.

· 에도 시대 후기: 막부의 동요(18C후반~1867)

: 화폐경제가 초래한 위기는 이제 무사들의 곤궁 수준을 넘어 막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18C 중엽 막부의 상급 가신 이던 다누마 오키츠구(田沼意次)는 막부의 재정난을, 종래의 유교적 미봉책이 아닌, 중상주의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실패했고, 그의 후임이 다시 유교적 대응책을 채택했기에 막부의 재정위기는 결국 해소되지 못했다.

2. 전국시대의 종식과 에도시대 260년의 평화

· 에도 시대 후기: 막부의 동요 (계속)

: 결론적으로 에도막부 260년의 평화는 지배층인 무사와 피지배층인 상공업자·농민들에게 각기 다르게 인식되었다. 체제에 불만이던 중하급 무사들에게, 19C 이래 서양함선이 출몰하고 막부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자신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었다. 게다가 그 동안 익혔던 유학적 소양은 이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정치적 실권을 쇼군에서 천황으로(중국식 군주친정)

→오랜 봉건제에서 군현제(=중국식 중앙집권체제)로

: 한편 에도 시대 내내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부보다 먼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던 변방의 도자마 다이묘들은 이를 마침내 중앙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했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이들이 도자마 다이묘들의 영지에 사는 중하급 무사들이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 과제

Q. 사회변혁사상으로서의 유학(儒學)?

: 현대 한국에서 유학(유교)의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어떨까? 아마도 뭔가 고리타분하고 낡은 느낌에, 기존 질서/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사상이란 이미지가 강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교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에도 중기 이후 무사계급을 중심으로 일본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유학은, 이후 에도 막부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중앙집권국가를 만드는 「메이지유신」이란 급진적 변혁의 사상적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일본의 근대국가 역시 단순한 서구화의 산물이 아니라, 유교사회化란 의미에서 볼 때, 뒤늦은 중국화의 산물로도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이에 관해서는 후술). 따라서 유학의 신봉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유교사회일 경우, 변혁을 강하게 거부하는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을 경우, 이를 유교사회로 바꾸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급진적 혁명가로서의 양면성을 가짐을 근세 말~근대 초의 일본사는 잘 보여준다 하겠다. (계속)

3. 과제

Q. 사회변혁사상으로서의 유학(儒學)? (계속)

: 이번 강의의 과제는, 따라서 근세 중기 이후 이런 유학의 확산의 결과로 후일의 메이지유신을 가능하게 해 준 여러 정치적/사상적 기반들이 어떻게 하나씩 마련되어 갔는지를 각자 조사해 오는 것이다. 다만 과제가 조금 전문적/구체적일 수 있는 관계로, 약간의 힌트를 주고자 한다.

: 그 첫째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이란 사상의 확산이다. 그 확산이 후일 메이지유신의 전제조건이라 할 「천황친정」(天皇親政)에 미친 영향은 크다. 두 번째는 유학의 중심개념 중 하나인 「역성혁명」과 일본의 전통적 군주인 천황과의 모순 문제다. 이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만세일계」(萬世一系) 사상은 현재 일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힌트를 중심으로, 유학이 일본근세→근대로의 변혁과정에서 기여한 역할을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세워 설명해 볼 것.

: 이제까지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어려운 고유명사의 사용을 지양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분량은 A4 1장(단면) 전후.